

# 681억 투입... '청년친화도시 순천' 만든다

### 시, 복지·교육 등 5대 분야 100개 사업 추진 인재양성·일자리·지역정주 선순환 구조 강화

순천시는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해 청년이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며, 정착할 수 있는 청년친화도시를 본격 조성한다.

이번 시행계획은 총 681억원을 투입해 5대 분야 100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분야별로는 일자리 25건 (99억4600만원), 주거 12건 (155억4900만원), 교육 13건 (121억7500만원), 복지 31건 (207억6300만원), 참여·권리 19건 (96억9900만원)이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청년 인재양성, 일자리, 정주'로 이어지는 정책 구조를 구체화하는 데 있다.

시는 청년정책의 성과가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서별 추진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실행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맞춤형 일자리, 청년자립지원 등을 통해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고 창업 역량 강화를 돕는다. 지역특화산업인 문화콘텐츠·우주방산·그린



지난해 9월 연향동 패션의 거리에서 열린 '2025 순천 청년의 날 축제'에 참여한 청년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바이오 분야 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시 인건비를 1년간 월 150만원씩 지원하는 신규 사업도 시행한다.

주거 분야는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등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과 전세대출 시 각각 대출이자를 3년간 월 최대 25만원, 4년간 월 최대 10만원 지원하고, 일자리 연계

을 위해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등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과 전세대출 시 각각 대출이자를 3년간 월 최대 25만원, 4년간 월 최대 10만원 지원하고, 일자리 연계

형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2년간 월 최대 20만원 지원 등도 병행한다.

교육 분야는 지·산·학 협력 강화를 통한 미래인재 양성을 목표로 지역대학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일자리와 연계한 맞춤형 교육을 촘촘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 분야는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희망디딤돌 통장, 문화향유를 위한 바우처 사업, 결혼축하금 생애 1회 200만원 지원 및 인·출산정책 등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한다. 아울러 마음치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은둔·고립 청년의 회복을 돕는다.

참여·권리 분야에서는 청년의 주도적인 참여문화 확산을 위해 청년 공동체 사업 및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청년친화도시 지정과 연계해, 부서 간 협업 기반의 분야별 사업 발굴·추진 체계도 강화한다. 시는 청년친화도시 정책과 시행계획을 같이 고려해 제감·성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청년 인재를 키워 지역산업과 일자리로 연결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취업 이후의 삶까지 순천에서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서 기자 2556pk@gwangnam.co.kr



광양시는 최근 제1회 광양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청년정책의 필요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논의했다.

## 광양, 청년 정주 여건·체감형 정책 본격화 정책 거버넌스 가동...도시 미래 기반 강화

광양시는 최근 제1회 광양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시의원, 청년대표, 관계부서 공무원 등 20명으로 구성된 청년정책 심의기구로,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 전반에 촘촘히 반영하고 분야별 추진과제를 유기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운영된다.

회의에서는 신규·연임 위원 9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를 진행한 뒤, 2026~2030년 광양시 청년정책기본계획(안)과 2026년 광양시 청년정책시행계획(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광양시 청년정책의 방향과 실행계획을 심의·조정했다.

2026~2030년 광양시 청년정책기본계획(안)은 향후 5년간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으로, 총 78개 과제(지속·확대 54개, 신규 24개)를 담아 청년이 머무르고 참여하는 도시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2026년 광양시 청년정책시행계획(안)은 기본계획을 연차별로 구체화한 실행계획으로, 총 102개 사업에 약 828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광양=김귀진 기자

## 여수, 지역 산업 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 확대

### 대출한도 상향·시설자금 신설...석유화학 기업 금융부담 완화

여수시가 지역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의 불황 극복을 위해 관련 기업들의 금융부담 완화에 나선다.

26일 여수시에 따르면 '2026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 석유화학산업 불황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

올해 사업의 핵심은 기업당 대출한도 상향과 시설자금 지원의 신설이다.

대출한도는 지난해 최대 10억원에서 올해 15억원까지 확대해 기업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또 기존 운영자금에 한정됐던 이차 지원사업도 생산설비

확충과 기계장비 도입을 위한 시설자금까지 확대했다. 단 건물과 부지 매입 자금 제외된다.

이차보전율은 운전자금 3.0%p(중소·중견 동일), 시설자금은 중소기업 2.0%p, 중견기업 1.5%p를 적용한다. 지원 대상은 여수 소재 석유화학산업(표준산업분류 C20) 기업과 전·후방 연관 기업이며, 대한대출은 제외하고 공고일 이후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1월 13일까지이며, 전남지역산업진흥원 이메일(jnrria@ria.or.kr)로 접수하면 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심사를 거쳐 추천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11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심사를 진행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석유화학 불황의 지속으로 지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에 집중했다"며 "지자체보다 상향된 15억원의 대출한도와 새롭게 추가된 시설자금 지원이 지역 기업들의 위기를 극복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

## 장흥, 도로명주소 민원 처리 문자 서비스 시행

장흥군은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변경·폐지 민원 처리 공문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운영한다.

군은 매년 400건 이상 발생하는 도로명주소 관련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이 보다 신속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문자 알림 서비스를 일반우편과 병행해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 절차는 건축물의 신축·철거 또는 도로구간 조정 등으로 주소 정비が必要な 경우, 민원인의 신청이나 담당자의 직권 조사를 거쳐 현장을 확인한 후 최종 결과를 통지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번 문자 알림 서비스 도입으로 우편물 수령까지 기다려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 민원 처리 완료 즉시 본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주소지의 실제 거주자가 달라 우편물을 받지 못했던 불편함이 사라져 민원 처리의 정확도와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장흥=정영수 기자 jms050311@

## 제22회 영산강사랑사·도민

### \*\* 제10회 나주사랑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

# 한마음 걸기대회

2026. 3. 28. (토) 09:00~13:00

'영산강 환경정화 캠페인' 참가학생에게  
→ 자원봉사(1365) 2시간 인정

접수방법 광남일보 홈페이지 배너 및 팝업창  
(www.gwangnam.co.kr)

행사장소 빛가람 호수공원  
(전남 나주시 호수로 77)

문의 광남일보 사연국 T. 062)370-7090  
※ 유선 시연도 진행합니다.  
※ 위 일정은 여건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참가대상 남녀노소 누구나(절차의 없음)

접수기간 2026년 2월 20일(금) ~ 3월 25일(수) 까지

주최·주관: 광남일보, 드리트미, (사)광남문화재단, 건락도

후원(예정): 나주시, 나주시 임업후계자협의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광주광역시체육회, 전라남도체육회, 대한적십자사 광주광역시지부, 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